

‘보복 소비’ 늘었는데...지역 백화점 성적 ‘저조’

광주신세계, 지난해 매출 1475억...전년비 4.8% ↓ 영업이익 12.3% 줄어 수수료 마진 적은 명품·가전 매출 증가 ... 화장품·의류 등은 ‘코로나 타격’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지역 백화점들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코스피 상장사 신세계는 지난 한 해 광주신세계 매출액이 1475억원으로, 1년 전(1549억원) 보다 4.8%(74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신세계 백화점 부문과 동일하다. 전국 신세계백화점 총매출액은 4조9061억원에서 4조6691억원으로 4.8% 줄었다.

광주신세계의 영업이익은 매출액 감소 폭의 3배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일반 관리비 등을 뺀 지난해 영업이익은 483억원으로, 전년 551억원보다 12.3%(-68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 신세계백화점 평균(38.1%) 보다는 감소 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당기순이익은 477억원에서 432억원으로 9.5%(-45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에 비해 매출액 감소가 심하지 않았던 요인은 ‘해외명품’과 ‘가전’ 부문 선전에 있다.

이 점포의 해외명품 매출은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지난 2019년 여름 새로 문을 연 생활전문관이 고객을 끌어들이며 생활가전 매출은 43% 올랐다.

명품과 가전이 전년보다 잘 팔리긴 했지만, 이들 부문은 백화점 수수료(마진)가 다른 부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이익률을 깎아먹는다.

반면 마진이 높게 쳐지는 화장품(-17%)과 여성(-20%), 남성(-7%), 스포츠(-8%) 의류 등 효자 품목은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았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광주신세계의 실질적인 매출은 오히려 3% 증가했다고 보면 된다”며 “광주를 포함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등 광역 상권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점포는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 실적 회복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방역을 강화한 광주지역 구매력이 외부로 덜 유출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 효과가 본격화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들어서는 전분기(3분기)와 비교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광주신세계 4분기 매출액은 425억원으로, 전분기(327억원)보다 29.9%(98억원) 뛰었다. 영업이익도 88억원에서 164억원으로 2배 가까이(86.3%) 증가했다.

지역 주요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해 매출은 12% 감소하며 코로나19 부진을 반영했다. 보복소비 영향을 받아 해외명품(19%)과 가전·가구(11%) 등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아동(-12%), 레저·스포츠(-15%), 여성·남성류(-24%) 등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달 11년 만에 예산 70억원을 들여 델리(음식) 매장 규모를 기존보다 50% 확대하며 식품관의 대대적인 재단장을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86.66 (-47.07)
↓ 코스닥	967.42 (-12.35)
↓ 금리(국고채 3년)	0.985 (-0.001)
↑ 환율(USD)	1107.60 (+0.10)

소상공인 ‘단비’

광주신보 ‘3無’ 특례보증 접수 10일만에 5100명 신청

광주신용보증재단은 ‘3차 소상공인 용자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받은 결과 최대 지원대상 5000명이 100명이 넘는 5100여 희망자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0영업일 만이다.

이번 3차 특례보증은 1000억원 규모로, 열흘 만인 지난 17일 5100여 명이 몰려 접수를 마감했다.

광주신보는 지난해 2월부터 1·2차에 걸쳐 ‘소상공인 용자지원 특례보증’을 진행했다. 1·2차 특례보증에는 2만1000여 명이 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5600억원 보증지원을 받았다.

‘3차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동산 등 담보 없이 광주신보의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 1년 간의 이자와 보증료를 면제 받으며 이용할 수 있어 이른바 3무(無)로 불리는 보증상품이다.

지원조건은 최대 2000만원까지 2년 일시상환으로 대출금리 연 2.7% 고정금리, 보증료율 0.7%이다. 1년 간의 이자와 보증료는 광주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받는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꾸준히 보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광주·전남중기청 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6만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증업종 등 지원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의 경우, 지원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난해 선정됐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선정기업의 대표자나 실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 신청 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통해 선정기업 소속임을 확인한다.

또 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으로, 전체 바우처 결제 기한은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최초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한다.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위해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변경된다. 수요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공 서비스 내역,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하며,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별도 제한이 없던 서비스 이용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홈카페 열풍...커피머신 인기 1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9층 생활가전 매장에서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캡슐 커피 전문 제조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남, 지역화폐 쓸 곳 많아졌네

가맹점 7개월 새 4742곳 증가

전남지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7개월 사이 4700개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한 상태로, 광양과 영광·담양·곡성·강진 등 지자체는 카드와 모바일 형식을 도입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 수는 112만8491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준 212만4477개에 비해서는 반토막(53.1%)이 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를 받고자 하는 점포

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 가맹점 집계에는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는 빠져있다.

지류(종이)형 지역화폐를 처음부터 도입해왔던 전남지역은 가맹점 수가 지난 달 말 기준 6만787개로, 지난해 7월(5만6045개) 이후 7개월 사이 8.5%(4742개) 증가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맹점을 일괄 등록할 예정으로, 등록할 가맹점 규모는 9만2500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양파 민간 수입량 6배 급증 올 2월 13일까지 1만2170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국내 양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민간 수입량이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aT 수입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13일까지 민간 양파 수입량은 1만217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7t)보다 6배 가량 증가했다.

양파 수입은 올해 초부터 주당 평균 2000t 수준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월까지 양파 수입물량은 1년 전(3000t)의 6.7배 수준인 2만 안팎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기준 광주양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양파 1kg 소매가는 3500원으로, 1년 전(2000원)보다 무려 75%(1500원) 뛰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